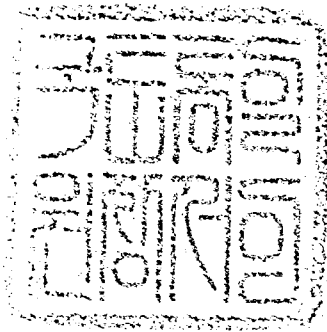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8.



研究機關：全北大學校 附屬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趙 英 彬

목 차

一. 서 론	5
二. Talcott parsons의 모델에 의한 남북한 사회문화 체제 특성의 비교	7
1. Parsons의 행동체제	7
2. Parsons의 사회체제 이론	11
3. Parsons의 사회체제 패러다임에 의한 남북한 체제의 비교	16
(1) 북한사회 가치성향의 특성	17
1) 중점적 가치	17
2) 통합적 가치	21
3) 적응적 가치	23
4) 유형유지 또는 문화적 가치	25
(2) 남북한 가치성향의 비교 척도	27
1) 중점적 가치	27
2) 신 비 성	30
3) 일원주의와 다원주의	32
4) 용구주의와 권위에 의한 자원의 배분주의	34
5) 계급주의와 보편주의	36
三. Dahrendorf의 집단갈등 모델의 고찰과 남북한의 비교 척도	43

1. Dahrendorf의 집단갈등의 모델	44
(1) 잠재적 이익과 현재적 이익	45
(2) 준집단과 이익집단	46
(3) 집단내의 갈등유형을 결정하는 변수	47
1) 조직의 조건	47
2) 다원주의대 중부	48
3) 이동성대 무이동성	49
2. 집단갈등 모델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의 비교	50
(1) 준집단	50
1) 지배적인 준집단	50
2) 피지배 준집단	51
① 회합과 토론	51
② 숙 청	52
(2) 세가지 척도에 의한 갈등의 비교	52
1) 조직의 조건	53
2) 이 동 성	53
3) 다원주의대 중부주의	54
3. Dahrendorf의 모델에 의한 남북한 사회체제의 비교 척도	57
(1) 남북한의 지배준집단	57
1) 지배적 준집단의 정치계급	57

2) 정치계급대의 갈등하는 이익	62
(2) 남북한의 피지배준집단	65
(3) 사회 이동성과 갈등	67
(4) 중북주의 대 다원주의	71
四. 결 어	75

一. 서 론

단일의 공동사회를 이루었던 남북한 사회가 외부적인 힘이라는 인위적 충격에 의해서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형성하고, 그 상태는 아직도 지속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근래에 우리의 학계에서는 종래에 등한히 여겼던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열이 고조되고 그에 대한 업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남북한을 비교하는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본다.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구업적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의 사회 문화체제를 비교하는 척도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비교 척도모형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비교 자체는 벌써 비교접근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비교접근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분석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사회 자체의 교차적인 측면에 특별한 초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 쓰이는 방법은 일반사회학의 분석이론이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Reinhard·Bendix는 「사회학사에 있어서 갈등과 변화를 강조하는 학자들과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주

註 1) S. N. Eisenstadt, Socialinstitution : Comparative Study, p.422.

목을 끄는데 첫째집단은 마르크스 (Marx) 에서 다렌돌프 (Dahrendorf) 에 이르는 학자들이며 그들은 인간이나 집단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둘째집단은 돌케임 (Durkheim) 에서 Parsons 에 이르는 학자들로서 그들을 '사회적-구조적' 또는 '문화적' 이론의 끌기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²⁾ 라고 함으로써 사회체제의 분석이론은 크게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Dahrendorf 도 사회분석 (사회체제) 의 단위를 통합이론과 강조이론이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두가지 분석이론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분석하려는 사회적 측면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중에서 한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에서 요즈음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모델인 Parsons 의 사회체제 이론과 Dahrendorf 의 집단갈등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①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하고, ② 남북한 사회구조의 특성과 사회 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인, 가치정향, 통합, 갈등의 차원에서 남북한을 서로 비교하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며, ③ 남북한의 사회체제 및 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는, 사회분석의 일반이론 외에 전체주의, 사회분석이론과 서구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체제를 비교하는 모델도 이 연구를 보강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註 2) Reihard Bendix, Culture, Social Structure and change in Embattled Reason, p.139

二. Talcott Parsons의 모델에 의한 남북한 사회문화 체제 특성의 비교

Parsons는 일반적 사회이론을 전개하는 기본으로써 네개의 기능도식 (The Four-Function Paradigm)을 제시하고 그에 의해서 일반적 행동체제의 구성요소와 그들 상호간의 연관성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그는 사회체제의 수준 (Social System level)에서 사회 (사회체제)를 네개의 기능에 의해서 그들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밝히고, 사회체제의 유지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그의 행동체제의 설명이론부터 고찰하면,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의 관계가 들어날 것이기 때문에 행동체제이론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1. Parsons의 행동체제

Parsons는 일반행동체제를 네가지 기능에 따라서 사회체제, 문화체제, Personality체제와 행동유기체 (The behavial organism)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행동체제의 하위체제가 수행하는 제일의 적인 기능 (The Primary function)을 보면 유형유지 (Pattern maintenance), 통합 (Integration), 목적달성 (Goal attainment)과 적응 (Adaption)이다.

행동체제의 구성단위의 조정을 다루는 제일의적인 통합기능은 사회체제에 귀속된다. 행동체제의 행동양식 또는 유형을 유지하는

유형유지 기능은 문화체제에 귀속된다. 문화체제는 ego의 기대체제의 조직에 관련되는 기호 또는 상징 (Symbol)으로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상징체제의 복합체이다. 목표달성 기능은 개인의 Personality에 귀속된다. Personality는 행동과정의 일차적 기관 (Primary agency)으로서, Personality의 만족을 최대로 충족하는 것이 행동의 목표이다. 행동유기체는 적응의 하위체제로서 물리적 환경과 상호연관성을 갖는 제일차적인 메카니즘이다. 3) 행동체제의 하위체제인 사회체제는 인간 개개인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이들 개개인들은 또한 유기체이고, Personality이며 문화체제의 참여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체제와 문화체제, Personality, 행동유기체는 상호침투 (Interpenetration)라는 연관을 갖게 된다. 4) 그의 가장 좋은 예로서는 사회목적과 문화적 규범은 개인의 Personality속에 내면화되며, 경험에 의해서 습득한 내용은 유기체의 기억장치 내에서 조직되고 저장된다. 문화체제의 규범적 구성요소는 사회체제의 구조내에서 제도화된다. 이상의 행동체제의 상호간의 경계는 (예컨대 문화체제와 사회체제) 이론적으로 양체제에 공통되는 지대이다. 이 지대는 상호침투의 지대 (Interpenetration Zone)이며, 이 지대에 의해서 행동체제간의 교환과정 (Interchange Process)이 진행된다.

註3)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p. 5

4) Ibid.

Persons 는 이와 같은 상호침투로 인해서 문화체제, Personality, 행동유기체는 물리적 유기체환경 (Physical-Organic environment) 과 근본적 실제 (Ultimate reality) 와 함께 사회체제의 환경을 이룬다고 보았다. 5) 이들 행동의 하위체제와 사회체제의 하위체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사회의 세가지 하위체제는 사회체제의 세가지 중요한 환경 즉, 사회체제 이외의 행동의 하위체제의 상호연관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정치 (Polity) 와 Personality, 경제와 행동유기체 유형유지와 문화체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6)

그러면 이들 행동체제의 상호 연관성에는 어떠한 계서의 순위가 있는 것일까? Parsons 는 설명하기를, 분석적으로 구별된 체제의 상호연관성을 조직하는 통제의 계서는, 통제의 Cybernetic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높은 정보를 가지면서 낮은 에너지를 가진 체제가 높은 에너지와 낮은 정보를 가진 체제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의 네가지 기능차원에서 보면 적응 (A) 은 목표달성 (G) 에 의해서 통제되고, 목표달성은 통합 (I) 에 의해서 통제되고, 통합은 유형유지 (L) 에 의해서 통제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일반행동수준에서 보면, 행동유기체 (A) 는 Personality (G) 에 의해서 통제되고, Personality 는 사회의 규범적 역할구조 (I) 인 사회체제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것은 다시 문화체제에 의해서 통제

註5) Ibid. p.13

6) Persons, Societies p. 9

된다. 그것은 다시 문화체제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문화체제가 통제의 제서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물리적 세계, 유기체, Personality와 사회체제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를 코미트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파괴가 전체사회의 소멸을 초래하는 사회체제의 핵심적 체제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회체제의 통일, 그의 존속 및 자기규제 (Self-regulation)를 확보하는 중심적인 요소는 문화체제라고 Parsons는 간주한다. 7)

위에서 우리는 일반행동체제이론에 의해서 사회체제와 그의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사회체제는 행동체제의 환경인 문화·Personality·행동유기체와 상호침투의 경계지대에서 다른 체제와 상호 교환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여러체제 중에서 문화체제가 사회의 핵심적인 체제라는 것을 알았다. Parsons는 첫째로 행동의 하위체제인 문화체제, Personality체제 행동유기체, 사이의 기능적 분화, 둘째로 전체 행동체제에 대한 두가지 환경인 근본적 실제 (신의 개념, 토템, 초자연적인 것)와 물리적 유기체환경 그리고 행동체제이면서 사회체제의 환경인 문화체제와 행동유기체의 결합 양식을 사회체제 사이의 상이한 점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한 참고 (reference)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8) Parsons의 이와 같은 주장은, 남북한의 사회체제, 문화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註7) Shurman p. 1~2

8) Parsons, Societies p.8

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Parsons의 사회체제이론

Parsons는 전술한 네개의 기능에 의해서 그 기능을 대표하는 하위체제 (Subsystem of Social System)를 구분하였다. 그들은 유형유지, 목표달성, 적응, 결합기능의 하위체제로서 이들의 구분은 사회에 대해서 제일의적으로 (Primarily) 어떠한 기능을 하며,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착안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A, G, L, I로 표시되는 이들 하위체제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A는 적응 또는 경제체제로서 목적 합리적인 고려에 의거하는 수단의 생산을 담당하며, G는 사회의 특정의 집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능을, L은 단위의 행동이 그 사회의 가치체제와 문화에 동조하도록 동기를 규제하는 기능을, I는 단위 상호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이와 같은 하위체제의 일차적 기능 (Primary function)의 수행은 각 하위체제의 목표가 된다. 각 하위체제의 목표의 중요성의 서열은 전술한 행동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응(A)은 목표달성(G)에 의해서 통제되고, 목표달성은 통합(I)에 의해서 통제되며, (I)는 다시 유형유지(L)에 의해서 통제된다. 유형유지(L)를 잠재성(Latency)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그가 사회체제의 하위체제들의 통제계서에서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위체제의 활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미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하위체제의 목표의 중요성은 L차원인 사회의 가치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L차원에 의해서 정치, 경제, 통합에 대한 가치의 코미트의 정도가 할당되며 각 하위체제는 할당된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출 방출한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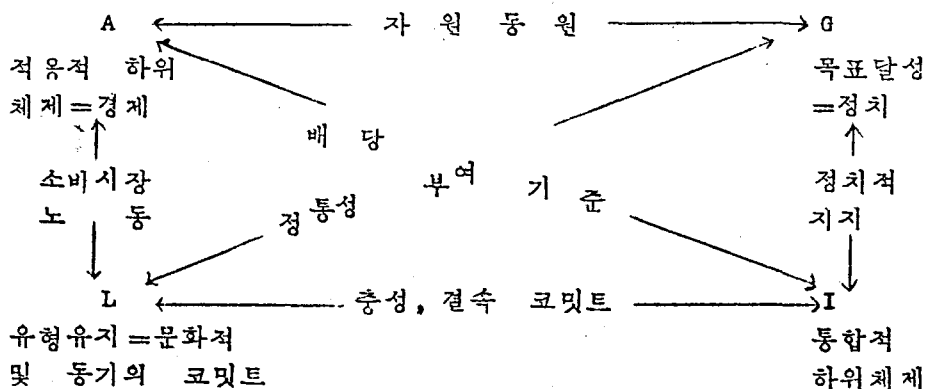
Parsons의 사회체제이론에서 언급할 것은 그가 말하는 사회체제는 경험개념이 아니라, 역할관계를 지표로 하여 구체적인 사회관계를 추출한 분석적 카테고리이다. 그는 사회체제의 구조적 구성부분 (Structural Categories or Components)을 네개의 기능적 패러다임 (Paradigm)과 관련을 시켜서 가치, 규범, 집합체 (Collectives),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가치는 사회체제의 유형유지, 규범은 통합적이고 집합체는 사회체제를 위한 목적달성, 역할은 적용적이다. 그러나 사회체제의 구성부분의 이와 같은 분류는 순전히 분석적인 카테고리이지 사회체제의 구체적인 구조적 단위는 이 네가지 구성부분이 결합한 것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역할의 집합체가 구체적인 실체인 것처럼 흔히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 점으로 교차된 것이다 (elliptical). 구성원의 역할없는 집합체는 없고, 반대로 집합체의 부분이 아닌 역할은 없다. 또 규범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며, 가치유형에 코미트 되지 않는 역할이라 집합체는 없다.' 10)

註 9) 丸山眞男, 日本思想の構造, p. 236

10) Parsons, Societies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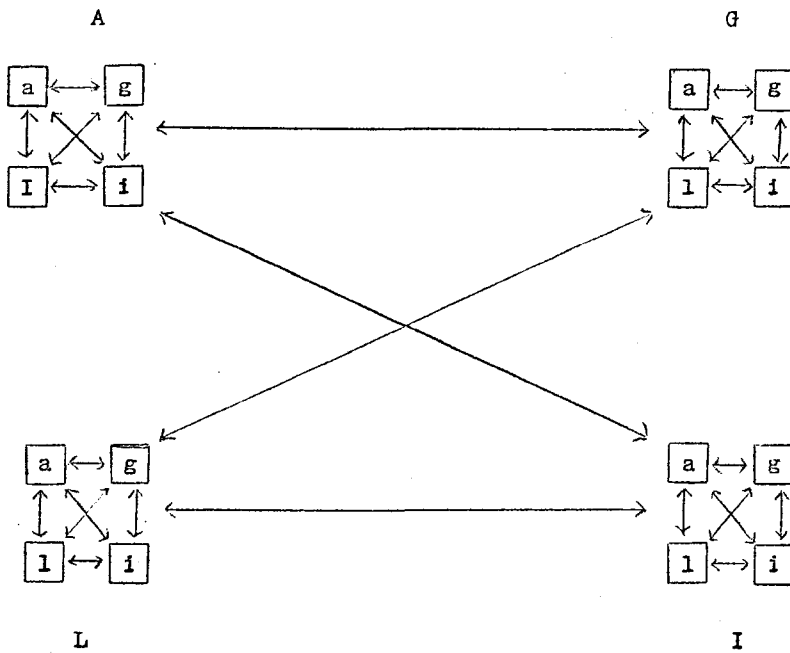
구체적인 집합체는 그의 파라다임에 의하면 복잡한 교환관계를 이루고 있다. 마루야마(丸山)교수가 Parsons의 사회체제 파라다임을 설명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집합체와 하위체제로서의 Policy나 Economy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차되어 있다. 예컨대 정부의 대사회활동은 대부분 하위체제로서의 정치체제에 속하지만, 경제체제나 통합체제와도 관여하고 있다. 또 정부자체를 사회체제로 본다면, 그 자체내에 정치적, 경제적, 통합적인 하위체제의 기능적 또는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합체에 있어서 어느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은 체제로서의 집합체와의 관련과 하위체제로서의 집합체로서의 관련 두개의 수준에서 파라다임이 적용된다. 이와같은 교차관계는 Parsons의 '사회의 교환관계 파라다임 (Paradigm of Societal Interchange)' 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다음의 도식 1은 사회체제의 구조를 하나의 수준에서 그의 기능들을 설명한 것이며, 도식 2는 하나의

도식 1. 사회체제의 Interchange



수준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구조내부에서 다시 모든 네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즉 2개의 수준에서 수행되는 네개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도식 2: 두개수준의 Interchange



※ Robert A. Blain의 'Anahernative to person's four-function pardigm as a basis for developing general Sociological Theory' 논문에서 인용. A.S.R.Vol 36; No.4 (Aug. 1971) p.683

네개의 기능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지만, 사회체제의 핵심은 통합적 하위체제이다. 왜냐하면 앞서 고찰

한 바와같이 행동체제 수준에서 사회체제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체제 분석에 있어서는 (사회체제 수준에서) 사회체제가 그의 내적통합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Parsons는 사회체제의 통합적 하위체제를 사회공동체 (Societal Community)라고 부르고, 그의 일반적 기능은 통일성과 응집력을 가진 집단적 조직과 규범체제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 기능은 규범의 일관성과 사회의 조화 및 협조를 뜻하는 사회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며, Hobbes의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투쟁'에 대한 해결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Parsons는 통합적 하위체제를 규범으로서의 법과 사회통제라고 보고 있다. 11)

사회체제의 핵심적 카테고리인 통합적 하위체제의 제일차적인 기능은, 사회성원을 전체로서 또는 사회내의 여러 카테고리로 분화된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사회공동체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충성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지만 Parsons에 의하면, 충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위사회체제의 통제계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문화체제 또는 가치체제에 의해서 정통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는 규범은 가치체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작용한다. Parsons가 사회체제 유지와 통합에 있어서 문화체제의 요

註 11) Parsons, Societies P. 11 - 12

소인 가치체를 중요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Parsons는 사회공동체의 성원을 서열적으로 구분하는 규범 제도가 바로 사회계층의 스케일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계층은 사회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이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제도이다. Parsons의 사회계층 이론의 시비는 그만두고 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생각하는 사회계층의 제도화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정당화 함으로써 사회체제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모든 사회는 평등과 불평등 사이에 어떠한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

이상에서 Parsons의 사회체제·분석모델을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한도에서 고찰하였지만, 그의 모델을 살펴 본 이유는 이 모델을 남북한의 사회 및 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 이용하거나 또 이용가능성의 진단 및 그 한계를 밝히기 위한 전제작업이었다.

3. Parsons의 사회체제·패러다임에 의한 남북한 체제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Parsons의 사회체제 이론에 있어서 하위체제간의 통제서열 (Control hierarchy)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

註 12) Parsons, Equality and Inequality in modern Society, or social stratification Revisited, p.19

한 것은 유형유지체제였으며, 유형유지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건 간에 행동의 단위가 그 사회의 가치체제와 문화형태에 동조하도록 동기를 규제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이 가치유형은 latency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하위체제 보다도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Parsons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은 가치정향(Value Orientation)이라는 변수로 남북한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가 치 정 향

(1) 북한사회 가치정향의 특성

남북한의 사회의 가치정향을 비교하는 척도로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느 가치에 대한 정향이 우월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사회를 Parsons의 체제에 따라서 비판해 가면 남북한의 사회 문화체제의 비교를 위한 척도가 구성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체제의 가치정향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중점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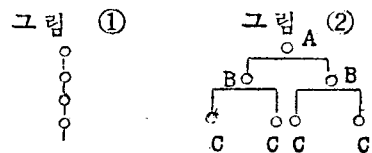
남북한을 비교하는데 편의상 북한의 중심적 가치부터 분석하면 북한사회의 가치정향은 Parsons의 네 차원의 기능 중에서, 목표달성의 가치정향(정치)이 다른 적응적 가치(경제), 통합적 가치, 문화적 가치보다 우월하며, 이들은 목표달성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다. 북한의 가치정향이 목표달성을 특히 강조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잠시 살펴 보기로 하겠다.

David E. Apter 는 ' Politics of modernization '에서 정치 체계를 분류하는데 가치형 (Value type) 과 권위형 (Authority Type) 이라는 두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사용한 두가지 분류기준인 가치형과 권위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가치형 $\left\{ \begin{array}{l} \text{완성형 (Consummatory) 신성한것, 행동과 관련된 초월} \\ \text{적 가치로부터 만족을 하는것} \\ \text{용구형 (Instrumental) 세속적 행동에 의해서 실현되} \\ \text{는 경험적 목적에서 생기는} \\ \text{만족 13)} \end{array} \right.$

권위형 $\left\{ \begin{array}{l} \text{계층형 그림 ①} \\ \text{피라밋드형 그림 ②} \end{array} \right.$



Authority Type

		Hierarchical	Pyramidal
V a l u e T y p e	Consummatory (Sacred)	A Mobilization Type	D Theocratic Types
	Instrumental (Secular)	C Bureaucratic Types	B Reconciliation Types

※ Political Systems and Developmental change in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Reserch ed. by Robert. T. Holt & John, E. Turner. p.161에서 인용

註 13) David, E.Apter. Politics of modernization p.85

Apter는 위 정치체제의 분류모형에 소련과 중공을 A형인 동원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동원체제는 국가의 목적이 지성 (Sacrosanct)의 것으로 보고 목적달성을 강조하는 정치체제이다. 북한사회로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간주된다. 일본의 정치학자 丸山眞男교수도 「심학, 구학, 공산주의 등의 사상분석의 방법」이라는 논문에서 「통합적 가치와 귀속적 가치정향 (Ascriptive Value Orientation)이 우월한 중국에 있어서는 이 가치체제를 체현하고 있는 독서인 계급은 일본의 무사계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모든 「변법」을 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유교의 현세적 합리주의가 정치체제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이데오로기 (중공)와 결부하였을 때」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중공의 공산주의 이데오로기는 목표달성 (정치체제) 가치의 우위를 강조하는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데오로기가 그의 사회 및 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의 이데오로기의 고찰을 통해서 목표달성의 강조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Frauz Sehurmann.은 중공의 이데오로기와 조직을 분석하는데 이데오로기를 「순수 이데오로기 (Pure Ideology)」와 「실천적 이데오로기 (Practical Ideology)」로 구분하고 있다. 순수 이데오로기란 개인에게 통일적이며 의식적인 세계관 (Weltan Schauung)을 부여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아이디어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적 및 사회적 갈등은 계급투쟁이다.」라는 세계관이 순수이데오로기이다.

이데오로기는 개인에 대해서 행동을 위한 합리적인 용구 (Instrument) 를 부여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Weltan Schauung 은 무엇인가? Shurmann 이 생각하는 중국 공산주의의 순수 이데오로기는 「세계역사의 유물적 힘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및 국가역사의 원동이 되는 힘은 계급의 갈등이며…… 프로레타리아는 모든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서 등장한다.」는 이데오로기이다. Schurmann 이 지적하듯이 「역사는 세계의 프로레타리아 (Proletarization) 이다.」¹⁴⁾ 북한 사회체제가 강조하는 순수 이데오로기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중심적인 교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 표현하고 있다. 「개개인이 혁명의 낙관주의를 갖는 경우에만이 진보에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며 혁명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동요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데오로기의 임무는 이와같은 새로운 프로레타리아를 만드는 일이다.」¹⁵⁾ 북한 사회가 목표로 하는 이 순수 이데오로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같은 이데오로기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추상적이고도 비판을 불허하는 신비성을 부여하고 있다. Alez Inkeles 는 전체주의 이데오로기의 신비성은 인간복지를 불고

註 14) Franz S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p. 40-41

15) Robert Scalapino & Chung-sik Lee, Communist in Korea p. 851 - 853

하며 개인이나 개인이 소속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을 그에 예속시키고 국가도 고차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도록 만든다. 16) 이 신비성의 이데오로기는 Parsons의 Ultimate reality의 구실을 한다.

모든 것을 그에게 종속시키는 순수이념의 신비성은 Parsons의 하위체제의 기능을 지배 제약하여 사회체제의 모든 자원과 기능을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원한다.

2) 통합적 가치

절대신비성의 가치정향을 통합적 가치와 관련을 시키면 조화와 협조를 기하는 규범적 사회질서와 제도는 위에서 말하는 순수 이데오로기에 의해서 정당화 (legitimized) 된다. 이미 그의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꿈이 역사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마당에도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화"라는 지상목표가 북한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침이 되어 있다. Shurmann은 말하기를 "순수 이데오로기는 옳고 그릇된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를 가르키지만 실천이데오로기는 행동을 규제하는 룰(rule)인 규범을 표명하는 것으로써 중국공산주의 이데오로기에 있어서는 순수이데오로기를 이론 (Theory)이라 부르며 실천이데오로기는 사상 (Thought) 이라고 부른다. 이론은

註 16) Alex Inkeles,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in Class, Status and Power, ed, by Lipset & Bendix p. 91 - 93

역사나 현실을 그에 의해서 비추어 보는 세계관이고 사상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가르키는 지침이다. 우리가 해석할때에 Shurmann의 순수이데오로기가 Parsons의 목표달성의 가치체제라면 실천이데오로기는 Parsons의 통합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의 Ultimate reality가 갖는 추상성의 특징이다. 이데오로기의 추상성은, 순수이데오로기의 세계관적인 요소와 실천이데오로기의 실천적 요소가 도착되어, 김일성의 개인적 결정이나 목표가 바꾸어짐에 따라서, 강조점, 내용, 성격이 변화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Scalapino와 이정식교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공산주의에서 국가공산주의로 전환한 것을 그좋은 예로서 들고 있다." 17) 이 신화적 이데오로기는 그 추상적 성격때문에 이데오로기를 실행에 옮기는 자들의 광범위한 선택범위가 있어서 오히려 유토피아적인 이데오로기로 부터 정통성을 부여 받은 일인독재의 가능성 소지를 주는 것이다. 중심적 가치와 통합적 가치체제를 관련시켜 볼때 둘째로 찾아 볼 수 있는 북한의 가치정향의 특징은 그의 일원주의 (monolithism)이다. 일원주의는 다원주의 (Pluralism)의 반대개념이다. 그것은 이질적 이데오로기뿐만 아니라, 그에서 나오는 실천이데오로기의 해석까지도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같은 통일성의 강조는 이데오로기라는 목적달성을 위

註 17) Scalapino p. 861 - 862

해세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 그를 향해서 획일화 되어야 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도 단일목적을 위해서 통일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통일성은 제도가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개인적 인간상징에 집약된다. 통일성의 개인에 대한 집약은 Sealapino 및 이정식교수의 다음과 같은 북한의 근로자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당의 투쟁기능과 그의 지도적 역할은 그의 완전하고도 절대적 이념적 통일에 의해서 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데오로기의 통일은 위대한 영도자가 당의 정상에 있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당전체는 유일의 지배정책인 영도자의 혁명적 사상을 지니고 그의 단일영도아래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인다.」¹⁸⁾ 이와같이 김일성은 북한 사회체제내에서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상징으로 추대될 뿐만 아니라, 그를 마르크스와 레닌과 같은 지위로 추대하고 신비화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신비성을 지닌 순수이데오로기는 김일성의 개인적인 상징으로 전락되었고 사회체제 통합을 위한 사회의 연대성(Solidarity)과 충성에의 문화적가치의 코밋트는 김일성에게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회의 규범적 질서는 김일성 단일의 의사에 의해서 정통성이 부여되고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충성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의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다.

2) 적응적 가치

남북한 사회체제의 가치정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Parsons의 모델이 밝혀주는 또 하나의 측면은 목표달성의 가치와 적응적

註 18) Ibid, p. 863

가치와의 관계이다. 이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Talcott Parsons의 파라다임을 일본의 가치체계 분석에 응용한 Robert N. Bellah의 설명을 잠시 인용하는 것이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Bellah는 Jokugawa Religion에서 「적응적 문제에 관해서 보면 집단목표의 추구를 위한 적응적인 행동만이 가장 높이 평가된다. 군사는 정치의 적응적 무기이며, 군사는 일본에서 매우 높은 위신을 차지하고 있고, 그는 체제의 목표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적응행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 원래 경제행동은 체제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적응적 상위체제의 목적에 종속된다. 경제행동은 그의 목표가 본래 특정의 용도에 한정되지 않는 제수단의 생산에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목적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회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기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의 가치가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경제행동이 체제목표를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는 완전히 정당화된다.」¹⁹⁾

북한에서는 경제활동은 정치목적에 예속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정치목적때문에 희생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 농업 집단화를 위해서 농민을 급속히 몰아대는 것은 두가지의 기본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로 급속한 공업의 발전, 특히 중공업의 발전우선의 결정은 농촌에 무거운 짐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최대의 생산량을 산출케 하면서 최소의 소비를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로 집단농장화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로 유지하는데

註 19) Robert N. Bellah Tokugawa Religion p. 15

있었다. 즉 사회주의의 운명은 농촌에 달려 있다는 신념이다. 농민이 이념적으로 개조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그들은 전체사회를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개인주의적 경향이나 재산에 대한 뿌치부르조아적 욕망은 그가 일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할때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북한에서 농민의 경제적 이익은 정치목적의 달성때문에 희생되거나 이용되고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가 강조된다.

4) 유형유지 또는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원래 보편적 규준과 보편적 진리가 존중되며, 사회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순수성이 존중되지만, 북한에서는 학문, 과학, 예술, 사회화등 모두가 푸로레타리아 또는 사회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시녀로서 기능한다. 이와같은 목적달성의 가치강조는 Inkeles가 말한 「정서의 국유화(Nationalization of affect)」가 문화가치의 특징이다. Nationalization of affect란 「애정과 증오 욕망과 야망등」은 전체사회 목적과 질서를 위해서 각각 그 맡은바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특정목적만을 위한 정서의 표현만을 허용한다. 그 목적이란 신비성의 요건의 충족과 사회법칙의 성취를 확보하는 목적이다. 사적인 개인적인 정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으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힘을 소모하는 일은 반대로 신비성을 지닌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는다.²⁰⁾..... ■ 북한 사회에서는 학문, 예술, 과학 등의 가치관이 공산주의의 순수이데오로기의 성취에 기여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구체적으로는 특정인물의 숭배, 당정책의 지지 찬양, 특정인물이 지시한 혁명노선의 관철, 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증오하며, 인민성, 계급성, 당성이 구현되어야 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²¹⁾

유형유지 또는 문화체제는 Parsons에 의하면 중심적인 가치나 제도의 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행동의 동기화 또는 동기부여의 기능인데, 북한에서는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공산주의 이데오로기의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이 모든 사회행동의 동기를 규제하고, 사적 또는 개인적 가치의 추구는 이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가 그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북한은 그의 가치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인을 조직으로 묶어서 그들의 동기부여를 사회목적을 위해 제한하며, 개개인의 생활을 없애 놓았다. 따라서 조직생활에서 오는 생활양식만이 인정되고 유지되며 이 조직생활의 양식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생활양식을 방지하고 억압한다. 더구나 이데오로기와 조직의 권위는 김일성에게 개인화되고 상징화 되어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며 그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강력하게 동기화하고 있다.

註 20) Alex Inreles, p. 101

21) 北韓 第2卷 2号 2月号 p. 115

(2) 남북한의 가치정향의 비교척도

남북한 사회체제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변수를 그대로 적용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우리들의 초점은 첫째로, 중심적인 가치는 각각 무엇인가? 둘째, 중심적인 가치의 신비성 여부 셋째로, 단일주의와 다원주의 넷째로, 초월적 가치 (Cosummatory)와 용구적 (Instrumental) 가치, 다섯째로 유형유지를 위한 동기부여를 척도로해서 비교할까 한다.

1) 중심적 가치

우리는 앞서 북한의 중심적 가치가 정치적 목적달성이 다른 가치체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의 가치체계는 그 중심적 가치체계의 성격부터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가치체계는 근본적인 목표를 표현하는 이데오로기아래, 사회의 모든 기능이 그에 의해서 규제되고 그 목적달성에 예속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가치체계는 절대적 또는 근본적인 이데오로기는 없고, 전통적 문화와 현대사회의 이념과 지도자가 제시하는 목표가 서로 얽힌 혼합적 가치이다. 한배호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 남북한의 정당과 정치의 비교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혁명적 정치와 과도적 정치체제의 구분은 두 통치체의 목표달성의 유형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이 생각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통치체로서 북한의 정치는 그의 궁극적 목표로서 북한에 있어서 사회주의 산업-농업국가를 만들고 공산주의가 이끄는 남북한의 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포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

한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노동당의 경제적 및 군사적 건설을 수행하는데 국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자주노선'이라는 스토건을 만들어냈다. 한국에 있어서의 목표달성유형은 그것이 현재의 상태를 보강하려는 것(주로 경제분야)과 현존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정치 및 사회분야)이 일관성 없는 혼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2)

북한 사회는 사회체제의 여러 가치기능 중에서, 목표달성이라는 정치체제 기능이 다른 하위체제를 지배하는 사회이며, 남한의 사회체제는 반드시 정치체제의 목표달성이 우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목표달성(정치), 통합(사회질서), 적응(경제), 유형유지(문화)에 대한 가치가 서로 교차되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통합적 가치가 강조되어 가족이 사회조직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가족의 성원에게 이념적인 덕행을 강조하였으며 이 가족제도의 이념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까지 연장되었다. 효행은 결코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경시되지 않았다. 23)

해방이후 한국에는 서구의 새로운 가치관이 수입되어 민주주의, 개인주의, 심용주의가 목표가 되었으나 가치체제는 제일성과 일관성 없이 새로운 가치가 전파되었다. 전통적 가치인 통합적 가치의 우위에 새로운 가치인 적응적(경제)가치의 우위가 교차되어 혼합가

註 22) 한배호 The Parties and the Politics in Two Korea
 叢細叢研究 Vol. XIII No. 4 (1970) p. 256 -257

23) 이만갑 한국사회의 가치구조 사상제 1961 5월호 p. 60

치체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가치체제는 한국의 자유주의 지향적 사회체제의 성격상, 북한과는 다른 가치정향을 갖고 있다. 이점은 Brzezinski 와 Huntington 이 미국과 소련의 이데오로기를 비교한 이론이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Brzezinski 와 Huntington 이 미국과 소련의 이데오로기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이데오로기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의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제국적 이데오로기를 체계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차이가 정치와 이념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치를 분석하는데 중요하다. 말을 바꾸자면,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정치적 스타일을 형성하는 근본적 태도, 신념과 교의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소련의 이데오로기는 모든 사회 정치활동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목적을 강조하고 그를 역사관과 판연시킨다. 그에 있어서는 이데오로기란 공적인 것이고 체계적이며 독단적이고 일련의 제도에 구현화되어 있다. 그는 근본적인 교의와 행동의 지침을 포함하는 공식적으로 선명된 교의라는 의미에서 공공연하다. 이들 교의는 규칙적으로 수정되고 지배 엘리트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그 추세에 맞춘다. 그들은 소비에트국가의 공식 이데오로기라고 선언되고, 모든 국민을 구속하며 지배적 공산당에 구현화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제도화 되어 있다. 그 교의가 공식적으로 수정되고 거부될 때 까지는 이데오로기는 유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독단적 교의이다.

이탈자는 억압되거나 제거당한다. 그 반면에 미국의 이념은 더욱 복잡하고 분명치 않다. 그들은 자연증가에 의해서 발전한다. 수 세기간에 걸쳐서 새로운 이념과 개념이 첨가되나 완전히 낡은 이념으로 통합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식적 교의는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논의가 많다. 24)

북한의 중심적 가치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선언한 것이며 그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당의 조직을 통해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체제화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사회체제의 지배적 가치는 자연발생 또는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누구의 독단이나 창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걸쳐서 형성된 것이며 또한 문화변용 (acculturation) 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지배적 가치정향의 특징은 조직이나 정당에 의해서 그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된 것도 아니며 인위적으로 체제화된 것도 아니다.

2) 신비성

남북한의 가치정향을 비교하는 또 하나의 척도는 중심적 가치의 신비성 여부에 있다. 가치정향의 신비성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첫째 정치적 목적달성의 가치가 Parsons의 소위 Ultimate Reality에 어떻게 코뮤티되어 있는가가 문제이다. 북한 사

註 24) Zbigniew Brzezinski & Samuel P. Huntington pol. power U S A/U S S R p. 19-20

회에서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는 Ultimate Reality와 결합함으로써 신화(Myth)로 전환된다. 프롤레타리아화와 제급투쟁의 Weltan Sehaung이 인간의 복지라던가 개인과 집단의 이익 만족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여지없이 무조건 받아 들여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 신화는 추상적 원리로서 독재자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도구로 쓰이며, 그의 권위를 정당화하는데 쓰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로 기존의 또는 현존사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폭력으로써 유토피아적인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들 세가지 문제에 따라서 가치정향이 신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²⁵⁾

북한의 가치정향 패턴을 볼것 같으면 그의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는 세속적인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독재자는 실천적 이데올로기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가치정향은 현세의 근본적인 부정에서 출발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가차없이 사회주의사회 확립으로 이끈다는 예언적 신화를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체계의 가치정향은 비신비적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David.E.Apter는 가치와 권위의 두개의 변수를 써서 정치체제를 분류하고 있거니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정치체제는 그가 말하는 조정형(Reconciliation type)과 관료형

註 25) Carl, J.Friedrich & Z, K.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 88-90

(Bureaucratie type) 사이의 과도형이며 조정형이나 판료형이나 Apter의 가치변수 구분으로 보면 용구주의임으로 그의 가치정향은 초월적이 아니고 경험적 목적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용구주의이다. 한국에서는 단일의 미래상을 그리는 이데오로기에 의해서 모든 사회체제가 규제를 받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만족을 희생하고 하나의 이데오로기를 신봉하는 귀일적이며 신비성을 지닌 이데오로기는 없다.

3) 일원주의와 다원주의

위에서 말한 중심적 가치 그리고 그의 신비성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것은 가치정향의 일원주의와 다원주의이다. 남북한 사회 문화체제를 일원주의와 다원주의라는 차원에서 비교한 때 비교의 척도가 되는 것은 첫째로 정치적 목적과 문화체제와의 동조성이다. 북한사회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푸로레타리아화」 「사회주의 사회의 승리의 필요성」 「전인민의 집단화에 의한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의 창조」라는 정치적 목적에 모든 개인 집단의 가치는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치정향의 다양성이 있다. 고영목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의 경우는 다양한 문화의 존립이 가능하다. 문화해석의 권한은 문화인 자신에게 있고 문화에 대해서 정치는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그리하여 인간의 문화가 강조된다. 인간적인 것의 기준이 가끔 모호하는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은 부단히 사회적 중의를 통하여 검토되고 그 잠재적 가능성에 까지 파고

든다.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정치와 무관한 문화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체제에 반항적인 문화로 어느 한계내에서는
 존립이 허용되고 있다. ²⁶⁾ 둘째로 단일주의와 복수주의를 측정하
 는 척도로써 고영복교수도 암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그 사회의 가치
 정향이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체제에서는 조직생활이 사회의 모든 성원의 규
 범이 되어 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은 조직의 틀에 의해서
 규제된 구속을 받으며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정향의 자율성은 허용되
 지 않는다. 개인주의적인 가치정향과 이기심은 상호비판과 자기비판
 이라는 집단요법 (group therapy) 에 의해서 억압된다. 한국의
 사회체제에서는 사회, 국가, 개인은 동일시하지 않으며 개인과 여러
 사회집단의 가치정향은 반체제적인 가치정향이 아닌 이상, 개인주의적
 가치정향은 물론 가족주의적 또는 귀속적 가치정향도 정치목적 위
 해서 제약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Edward.C.Banfield 가 말한
 'amoral familists' 라는 역기능적 가치정향을 하게 되는 수도
 있다. 아무튼 개개인의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 행동과
 추상적 정치이론 (예컨대 이데오로기) 사이에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²⁷⁾ David.E.Apter가 말한 바와같이 (공산주의
 국가를 그의 Sacred-ed Collectivity model 인 동원체제 (mobi-
 lization) 로 간주할 때)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개인은 형태

註 26) 高永復 社会体制와 階層構造 P.55

27) Edward.C.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p.83-101

적으로..... 잠재성 (Potentials) 에 불과하며 구조적으로 정치적 공동사회는 잠재성을 실제 (reality) 로 바꾸는 수단이므로 사회가 사회생활의 핵심이다. 개인은 이차적인 Personality 이다. 규범적으로 (Normatively) 는 개인 도덕은 정치이념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의 목적을 구현하는 체제의 도덕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가치정향은 개인의 다양성 보다는 통일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개인의 생각의 흐름 보다는 집약되고 획일적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강조된다. ²⁸⁾

4) 용구주의와 권위에 의한 자원의 배분주의

Parsons 의 파라다임에서 A 차원과 중심적 가치와의 상호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Parsons 의 가치패턴의 변수와 사회체제의 하위체계기능 도식을 결합시킨 도식은 다음과 같다. 도식에서 경제적 가치는 보편주의와 업적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목표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합리적 수단의 생산에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체제의 경우 사회주의사회 건설이라는 정치목적이 본래의 적응의 합리성을 압도하기 때문에 전제체제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제행동은 부정된다. ■ 북한사회체제에 있어서는 당, 국가에 대한 충성과 집단책임의 강조를 통해서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협조를 역설하고 있다. 그물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복지와 국

註 28) David.E.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p. 31-32

가치패턴과 하위체제의 결합도식

		Universalism	Particularism
Pattern Variable	A		G
achievement		Economy	Polity
Ascription		Motivation alor Cultural System	Integrative or Institutional System
		L	I

가의 구호를 위해서 일한다. 개인주의는 적이며, 구질서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들은 국가의 재산과 사회의 재산에 대한 무관, 국가에 대한 그의 의무에 대한 개인의 무관심에서 표명된다. 29)

한국의 사회체제는 용구주의 (Instrumentalism) 로 대표된다. 홍승직교수의 지식인의 가치관연구에서 보면, 응답자의 15.97%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통제된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중의 상당수는 경제발전을 위한 개인적 자유의 희생을 원하지 않고 있다. 30)

David E. Apter 는 용구주의가 지배적인 체제모형을 Secular-libertarian model 이라고 분류하며, 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31) 행태적으로는 세속적 - 자유주의 모형은 두개의 능

註 29) Scalapino and Chu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854

30) 홍승직.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p.91-94

력을 갖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에 대한 능력과 자기이익을 아는 능력이다. …… 구조적으로는 그 체제는 합리성의 활용과 자기이익의 추구를 위한 최대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설명하고 이 세속적 자유주의 모델의 공통적인 형태는 “자유주의적 공리주의 모델 (the liberal utilitarian model)”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제행동에 대한 가치정향은 개개인의 욕망을 합한 것이 공공의 선 (Public good) 이며, 합리성 자유 경쟁의 특성을 갖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정향에 속한다. 31)

5) 제급주의와 보편주의

Parsons의 유형유지체제 또는 동기화의 체제와 중심적 가치정향을 관련시켜 보면, 유형유지의 하위체제는 사회체제의 가치나 제도의 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행동의 동기화를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사회의 동기화체제를 분석하는 척도는 그의 제급주의에서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사회의 제급주의는 첫째로 가정이나 학교에 있어서의 사회화, 둘째로 생산적 노동을 동기화하는 노동자의 윤리, 세째로 예술의 만족감등의 동기화를 고찰하면 일관해서 나타나 있다. 박형봉이 1964년 8월 20일자 “근로자”에서 “인민이 다른 사람과의 도덕관계를 확립하면서 그들의 집단과 그들의 사회관계 (Context)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바라는 모범시민이 된다는 것은,

註 31) David, E. Apter p. 28-36

우리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식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성격을 갖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사회주의체제는 그 자신의 도덕적 성격의 자질이 부여되어 있는 인간형을 만들어 낸다. "라고 말한 바와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것이 사회화의 목적이다. 박형봉은 다시 인간성 (Humanism)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인간성이란, 사랑, 동정, 인간에 대한 일반적 존중의 속개념 (ageneric term)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계급적 고려를 넘어선 모든 인류에 대한 애매한 유의 사랑과 고려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계급과 피착취 인민을 위한 동지애이며, 위대한 희생을 요구하며 적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그와 싸울 준비를 요구한다. 계급구분이 없는 전인류를 포괄하는 인간성을 생각할 수 없다." ³²⁾ 이와같은 계급주의는 첫째로, "①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조국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사랑하게 하며, ②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게 하고, ③공동재산과 노동을 사랑하며, ④미제와 반혁명 분자들을 미워할줄 알며, ⑤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게 한다." ³³⁾는 북한의 사회화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둘째로 계급주의는 노동을 동기화하는 노동윤리에 표명되어 있으며,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를 만든다는 중심적

註 32) Scalapino & Chung-sik Lee p. 874-875

33) 한병춘. 남북한 단일문화권형성 발전에 관한 장기정책방안
p. 51

가치인 이데오로기가 이 새로운 노동윤리를 신장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①노동은 개인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를 위해서 하는것, ②협동농장과 산업노동자는 규칙성, 기술의 숙련, 과학의 전적인 이용을 배워서 이들을 비롯으로 삼을것, ③노동영웅과 작업할당의 초과수행제를 통해서 무한정하게 가속적 작업속도로 일을 하는 의욕.³⁴⁾ 이와같은 노동윤리는 모두가 「노동제급이 주인되는 제급이며 궁극적 권력의 소지자」라는 제급이론에 의거한 노동을 동기화하는 윤리이다. 세째로 예술에 대한 동기화를 보면 앞서 Parsons의 사회의 하위체제와 가치유형의 변수를 결합한 도식에 의하면 그는 어디까지나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예술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예술이거나 심미적인 추구에서 오는 만족감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문화 체제에선 예술이 집단의 목표달성에 의해서 통제된다. Inkeles에 의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은, ①전체주의자의 절대적인 지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구이며, ②인민에게 현재와 미래상을 보여 주어야 하고, ③새로운 사회주의질서를 반영 또는 찬양하며, ④그가 개인적인 견해를 위해서 창작되면 정서의 국유화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다.」³⁵⁾

이에 반해서 한국의 가치나 제도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화는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특정한 이데오로기의 목표달성을

註 34) Communism in Korea p. 853

35) Alex Inkeles p. 103-105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실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첫째로 사회화에 의한 사회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동기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의 한교교육의 이념을 보면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실현에 기여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북한의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의 개조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교육은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능력과 인류공영이라는 일반적 인간성이라는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일면, 가정에 있어서의 사회화는 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출세가 강조됨으로써 가족에 대한 충성이라는 전통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 및 보편주의의 동기화가 결합하고 있다. 둘째로 생산노동은 사회체제의 목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응의 하위체제 목표에 의해서 동기화되기 때문에, 개인의 최대의 소득과 이윤의 추구에 의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셋째로 예술은 계급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에 내재하는 보편주의적 가치와 미적, 정서적 가치가 존중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계급주의적 예술에 대한 불법화외에는 보편주의적 미와 정서의 국유화는 강조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Parsons의 사회체제의 하위체제 파라다임에 의한 남북한 사회체제의 가치정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사회의 가치정향 비교척도

척도기준	남한사회체제	북한사회체제
1. 중심적 가치	통합적 가치 (목표달성이 특히 강조되지않음)	목표달성 (정치체제) 가치의 우위
2. 이데오로기의 신비성	Ultimate Reality 는 정치목적과 분리됨	Ultimate Reality 는 정치체제의 목표달성과 일치
3. 일원주의와 다원주의	다원주의 (통합적 가치)	일원주의
4. 초월적완성주의 용구주의	용구주의 (경제체제)	초월주의
5. 계급주의와 보편주의	보편주의 (제도가치의 유형유지)	계급주의

척도기준

Parsons 의 네개의 기능에 의한 분류	비교가치기준	비교가치 기준의 척도를 위한 변수
목적달성 가치우월성 여부	1. 중심적 가치	①공식적 이데오로기의 존재여부 ②체제적 ③독단적 ④제도로써 구현화
	2. 신비성	① Ultimate Reality 의 성격 구유여부 ②추상성 ③유토피아적사회건설의 목표유무
통합적가치와의 관계 (중심적가치의)	3. 일원주의 다원주의	①정치목적에 대한 문화체제의 동조성 ②개인과 집단의 가치정향의 자율성
적응적가치와의 관계	4. 용구주의 완성주의	①개인이익 추구의 기회 ②경제행동의 합리성 경쟁 자유

Parsons의 네 개의 기능에 의한 분류	비교가치기준	비교가치 기준의 척도를 위한 변수
유형유지 또는 동기화의 가치와의 관계	5. 계급주의와보편주의	①보편적 인간성과 계급적 인간성 ②사회주의적 인간의 창조와 자주적인간 (사회화) ③노동윤리의 동기화 ④예술의 보편적 만족감과 예술의 도구화 또는 정서의 국유화

Parsons의 파라다임에 의해서 한국과 북한의 사회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 한국과 북한의 중심적 가치체제가 무엇이며, 중심적 가치체제와 각 하위체제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힘으로서 한국과 북한사회의 차이점이 좀더 선명하게 부각되었을 줄로 생각한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그의 이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그의 행동체제이론은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주었다. 둘째로 그의 네가지 하위체제의 통제서열의 이론에 의해서 정치체제, 통합체제, 경제체제, 문화체제의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범과 가치체제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통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셋째로 북한사회의 사회주의 혁명이데오로기가 북한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 그의 모델이 갖는 난점

은 첫째로 그의 이론은 사회주의를 분석하는데 지나치게 규범과 가치체제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유지를 위한 분석에 그치고 기존사회체제의 유지분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로 그는 사회체제의 각 구성요소는 제아무리 사소한 것일망정 전체구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Dahrendorf가 "..... Parsons의 체제는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가 변하면 그는 전적으로 파괴되며..... 새로운 체제가 된다.구조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로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와같이 남북한 사회체제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체제의 유지기능을 분석하는데만 유용하다.³⁶⁾ 셋째로 Parsons의 모델을 Homans가 지적하였듯이 비교적 소수의 단순한 이론가설을 가지고 수많은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조작화 (empirical operationalization)가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체제를 비교하는데도 그의 모델을 사용하는 한 측정가능한 경험적 조작화의 난점이 여전히 남을 것이다.

註 36) Dahrendorf Class and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P. 131

三. Dahrendorf의 집단갈등 모델의

고찰과 남북한의 비교적도

C. Wright Mills는 Parsons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경우, 여러 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Parsons의 모델은 권력이나 모든 제도적 구조에 관한 자질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지배구조도 등한히 한다. 둘째로, 갈등개념이 명확히 들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의 조화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자연적인 특징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18세기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의 생각과 공통된다. 셋째로, 갈등의 기술적 제거와 놀라운 조화의 성취는 그 일반이론으로 하여금, 사회변동, 역사를 다룰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³⁷⁾ Parsons의 모델은 어느 사회의 지배적 가치정량과 규범구조를 분석하는데는 적합하지만, 그 사회의 실제 사회제도를 분석하는 모델로서는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Parsons와 같은 통합이론학과와는 대조적 입장에 서있는 강제이론(Coercion theory) 학파에 속하는 Dahrendorf의 모델을 고찰함으로써, 사회제도의 사실적 측면을 밝히는데 수용해 볼까한다.

주 37) C. Wright Mills, Sociological Imagination P.42

1. Dahrendorf의 집단갈등의 모델

Dahrendorf는 강제이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a. 모든 사회는 각 시점에서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사회변동은 도처에 있다.

b. 모든 사회는 알력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갈등은 도처에 있다.

c. 사회의 각 요소는 그 분렬과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d. 모든 사회는 어떤 성원들에 대한 타성원들의 강제에 의거하고 있다. 38)

위와 같은 강제이론의 입장에서는 그는 사회분석의 핵심을 권위에 두고 있다. 그는 권위의 상이한 분배야말로 언제나 조직적인 사회갈등의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관계가 형성되면 갈등이 반드시 생긴다고 보았다. 통합이론이 사회분석의 단위로써 사회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가 쓰는 갈등이론은 Max Weber의 카테고리인 명령적으로 조정된 결사(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라는 사회분석의 카테고리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핵심적 카테고리는 명령적으로 조정된 결사에서 행사되는 권위이다. 그가 사용하는 권위의 특수한

주 38) Dahrendorf, Class and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P.162

의미는 첫째로, 결사에 있어서 권위의 분배는 갈등집단형성의 궁극적 원인이며, 둘째로, 권위는 어떠한 결사에 있어서나 두개의 갈등집단 형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배집단과 복종집단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상과 같이 사회학적 갈등이론의 가정을 확립한 다음에 다시 갈등집단(Conflict groups)의 형성에 관한 고찰을 하고 있다.

(1) 잠재적 이익과 현재적(顯在的) 이익

Dahrendorf는 “갈등집단은 명령적으로 조정된 결사(association)에 있어서 권위의 2분적 분배(dichotomous distribution)에 의거한다.”는 그의 갈등이론의 기본가제이다. 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공동체에 있어서 상이한 권위위치는 그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갈등하는 이익을 갖게 한다. 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과 복종의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그들 지위때문에 그 실체와 방향이 상반되는 어떤 이익을 갖는다.”³⁹⁾는 것이다. 조직공동체내에서 유사한 권위지위를 갖는 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가질때, 이것을 객관적 이익(the objective interests)이라고 하면, 이 객관적 이익은 Dahrendorf로 볼것 같으면 역할이익(role interests)이다. 즉 그것은 조직공동체에 있어서 권위역할에 따르는 기대되는 행동정향이다. 이 역할이익이 역할수행자의 입장에서 볼때 잠재적 이익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 이익

주 39) Ibid, p.184

이 특정조건 하에서 의식적인 목표가 될때 바로 이것이 현재적 이익이다.

(2) 준집단과 이익집단

Dahrendorf는 잠재적 이익과 현재적이익(顯在的的利益)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지합체(aggregates)가 갈등집단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지배적 지위이건 복종적 지위이건 동일한 권위지위를 가진 자들은 공통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준집단(Quasi-grup)이다. 이들은 단순한 대중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다. 이익집단은 그의 구조, 조직형태, 목표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준집단과 다르다.

이들 준집단과 이익집단은 갈등집단을 형성하며, 이들이 비갈등집단과 다른 점은 지배와 복종관계의 정통성과 관련된 이익 또는 권위구조때문에 생긴 집단이므로 권위관계가 없는 비갈등집단과는 구별된다. Dahrendorf는 준집단과 이익집단(정당까지 이 집단에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이다)의 관계에 대하여 이것은 마치 어느 정당에 투표한 투표인과 정당당원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비유하고 있다. 준집단은 이익집단보다 규모가 크며, 그로부터 이익집단이 충원되고 발생하는 집단이다. 공통적인 잠재이익에 의해서 결합된 준집단은 권위의 2분합적 분배에 의해서 두개의 준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곧 권위를 갖는 준집단관 권위로 부터 배제된 준집단이다. 전자는 기존권위구조의 정통성을 방위하려는 준집단이며 후자는 그 정통성을 공격하려는 준집단이다. 이들 준집단으로 부터

이익집단이 충원되지만, 모든 준집단이 이익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익집단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Dahrendorf는 이들 조건을 준집단과 이익집단의 매개변수로 보고,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첫째로, 조직의 기술적 조건으로서 이들은 조직의 현장규범, 지도자와 성원, 기타 물질적 요건이다. 둘째로, 조직의 정치적 조건으로서 조직(대립되는 이익집단) 형성을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준집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조직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준집단 성원간의 의사전달, 준거집단이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구조적 유형을 지닌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0)

(3) 집단내의 갈등유형을 결정하는 변수

Dahrendorf는 갈등집단의 형성에 대해서 일반이론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결음 더 나아가서, 집단갈등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측정의 척도가 될 변수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 변수를 전체주의 사회의 갈등과 자유사회의 갈등유형을 비교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본래의 목적인 남북한 사회체제의 비교에 매우 유용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우선 그는 계급갈등의 강도와 폭력을 다음과 같은 변수와 관련을 시키고 있다.

1) 조직의 조건

전술한 조직의 조건은 갈등의 강도와 폭력을 설명하는 요

주 40) Ibid, P.가79-187

인이며, 특히 조직의 정치적 조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등 집단이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면, 격렬한 갈등형식은 배제된다.

왜냐하면, 대립된 갈등집단은 서로 사회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실 그대로 용인하며, 그를 위한 해결책은 타협에 의해서 격렬한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원주의의 중복 (Super imposition)

다원주의 - 중복의 척도에 관해서 보면, 여러 상이한 결사 (association)의 계급형 (Class type)이 단원주의의 경우 분리되어 있고, 중복현상의 경우에는 일치 또는 중복되어 있다. 말을 바꾸면 전자의 경우에는 한 association에서의 지배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다른 association에서는 예속집단의 성원이 될수 있는바와 같이, 그의 지배적 지위와 예속적 지위가 결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해서, 후자는 결사가 달라질망정 지배집단과 예속집단의 성원은 변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국가의 지배집단은 당, 산업, 군대에서도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지배집단인 것이다.

Dahrendorf의 가설을 보면 갈등의 중복도와 그들의 강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갈등집단이 여러개의 association에서 遭遇하고, 여러번 충돌을 하면, 모든 결사의 충돌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결합되어서 하나의 포괄적인 이익의 갈등이 출현하게 된다. 41)

주 41) Ibid, P 215

타면(他面) 갈등의 대립이 다원적이면 갈등의 강도는 감소된다. 말하자면, 재산,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이 권위의 행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비교적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만족할 수도 있다. 권위 지위와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사이 에 상관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급의 갈등은 심하지 않다.

3) 이동성 대 무이동성 (immobility)

Dahrendorf는 계급의 개방성과 계급갈등 사이에는 역비례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어느 사회에서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있을수록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계급갈등은 적어진다. 이동성이 많아질 수록 개인 간의 경쟁이 심해지지만, 개인이 계급갈등에 소모하는 에너지는 적어진다.

왜냐하면, 개개인 은 지배계급으로 상승하거나 피지배계급으로 하강할 기회가 있을수록 계급적 지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그의 全人格을 비쳐서 계급갈등에 몰입하지는 않게 되기 때문이다. 42)

위와 같이 Dahrendorf는 갈등의 강도를 측정하는 경험적 변수로서 사회조직의 조건, 단원주의와 중복주의, 사회이동성 등 세개의 변수를 가정하고 있다. 다행이도 그는 이 변수를 이용하여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의 비교방법은 남북한 사회가 각기 안고 있는 사회갈등과 갈등규제를 비교하는데 쓰일

주 42) Ibid, P 213-223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의 비교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2. 집단강등모델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의 비교

(1) 준 집단

1) 지배적인 준집단

Dahrendorf는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의 지배계급의 집단을 준집단으로 보고, 그들을 비교하는 척도로써 집단의 동질성(homogeneity of group)를 들고 있다. 전체주의 사회의 정부 엘리트는 동질적이며, 조직화된 보다 큰 집단의 일부이며, 그들의 의사 결정은 이보다 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익에 따라서 규제된다. 그는 바로 전체주의적 일당이며, 이 정당이 정부의 지배층을 총원하는 보다 큰 집단이다. 그 정당은 권위관계의 현상유지를 하려는 준집단이다. 他面 동질성이라는 척도의 다른 극단에는 정부의 엘리트들은 안정되고, 조직화된 준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정당들이 있지만 그들은 통일성이 없고, 서로 이질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질적인 보다 큰 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면, 상이한 이익집합체의 이익표명의 통로를 제공해 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질적 준집단과 이질적 준집단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이념형(ideal type)이지, 실제로는 전체주의정당 내부에서도 언제나 분파적 이익을 대표하는 경쟁적 하위집단이 있다. 예컨대 중앙과 지방, 공업과 농업, 극단파와 온건파, 관료와 기업의 압력단

체가 지배를 위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존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그의 유지를 위해서 분파작용을 포기한다. 전체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은 동질적이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배계급과의 한계선이 뚜렷하게 그어져 있다.

2) 피지배 준집단

Dahrendorf는 전체주의 국가의 피지배준집단은 독재일당의 당원이 아닌 광범위한 사람들로 구성된 준집단으로 보며, 그들의 다양한 이익은 권위의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려는 단 하나의 요구로 결합된다. 이 피지배준집단이 특징은, 첫째로, 그들의 이익을 조직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잠재적으로 표면 아래에서만 잠재 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들 갈등을 규제하는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방법들은 회합과 토론 및 숙청이다.

① 회합과 토론

토론은 이들의 잠재적인 피지배집단에게 표현의 통로를 만들어 주기는 하나, 조심스러이 당에서 정해진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개개인의 비판과 정책을 지지, 비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당 및 산하조직이 국민의 욕망과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이면서, 타면에 있어서는 산재하고 있는 피지배준집단의 성원들을 끌어 모아, 상호접촉하게 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 갈등의 핵심을 만드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반은 대부분이 자주 회합을 하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회합과 토론은 당이 피지배자의 욕망과 감정을 알아보기

보다는, 그들의 계획을 얼마만큼 밀고 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다. 43)

② 숙 청

숙청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갈등규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지배계급내의 단순한 권력암투나 경쟁의 표현이 아니라, 피지배집단의 갈등의 에너지를 재편하는 수단이다. 회합과 토론 및 숙청은 갈등의 억압은 물론이고, 갈등규제 (Conflict regulation) 수단이다. 전체주의 사회의 지배집단은, 동질성을 가진 조직화된 집단이고, 피지배집단은 그의 이익을 조직할 자유가 없거나, 지배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이익에 머물러 있고 갈등은 표면하에 잠겨 있다. 자유사회의 지배적 집단은 이질적이고 일체감이 없으며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 반면에 피지배집단은 이익의 조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잠재적 이익이 공식적 이익을 표명하는 이익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Dahrendorf 가 집단갈등을 측정하는 세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전체주의사회와 자유사회를 비교한 이론을 살펴 보기로 하자.

(2) 세가지 척도에 의한 갈등의 비교

Dahrendorf는 갈등규제방법을 민주정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보았다. 자유사회는 다

주 43) Ibid, P 313

양성을 권장하기 때문에 갈등은 도처에 있는 것이며, 자유에는 으레히 따라 다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주의사회에서는 齊一性 (Congormity) 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은 체제의 응집력과 존속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1) 조직의 조건

자유사회에서는 피지배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집단을 조직할 자유를 가지지만,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이익의 표현마저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조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갈등이 축적된다.

2) 이동성 (mobility)

서구사회에는 사회이동성이 비교적 높다. 아직도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계층의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제도상의 계층적 제한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세대간의 교육수준의 상승은 계급간의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직도 계급적 지위는 개인으로 볼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집단적 운명이라고 간주되지는 않으며 父代에 성취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자식대에는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이동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산업화된 자유사회와 비교할때, 사회이동이 적다. 그 이유로써 Dahrendorf 는 Djilas 의 견해에 따라서 <전체주의사회에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새로운 계급은 다른 계급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전체주의사회의 사회계층의 폐쇄성과 무이동성(immobility)은 그 사회의 준집단. 이익집단의 갈등이 음성적이며, 잠재적으로 보다 격렬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3) 다원주의 對 중복주의

Dahrendorf는 세가지 척도중에서 다원주의 對 중복주의 척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전체주의사회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서는 모든 갈등이 중복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로, 권위구조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보수척도가 중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위, 지위를 갖는 사람은 누구나 富, 권위 및 사회신분에 따르는 보수를 가질 수 있고, 정치적 권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올라갈 수는 없다.

둘째로, 동질적이고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엘리트가 국가, 산업, 군대 및 기타 모든 결사의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때문에 권력이 일반화되어 있다.

셋째로, 계급성을 띠지 않는 사회적 갈등이, 불균등한 권위의 분배에서 유래하는 갈등과 일치하고 있다. 정치계급의 갈등, 산업계급의 갈등, 지역적 갈등, 도시와 농촌의 갈등등이 단일의 포괄적인 대립을 이루도록 중복되어 있다.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자유사회에서는 사회계층의 척도는 대체로 분리되어 있다. 권위의 소유는 반드시 부, 위신, 안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정상에서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며, 상이한 결사의 갈등은 서로 분리되

어 있다. 국가에 있어서의 지도력은 산업, 군대, 기타 결사에 있어서의 지도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사회에서는 권위로 부터 배제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회적 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4)

이상 우리들은 Dahrendorf의 집단갈등의 모델을 살펴 보았다. 이들의 이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 44) Ibid, P 314-317

자유사회와 전체주의사회갈등의 비교적도

비교적도	자유사회	전체주의사회
기준 집단	상이한 이익의 집합체 - 이질적, 비조직화	동질적 조직화된 집단 - 전체주의 단일정당
	조직의 자유 - 이익집단 갈등의 현재화 (顯在化)	조직의 자유 없음 - 갈등의 잠재화
	이익집단의 경쟁, - 선거	토론과 회합, 숙청
갈등 측정 변수	집단형성의 자유 → 이익집단	집단형성의 자유 없음 - 준집단
	사회계층간의 이동개방 - 사회이동성이 많음	새로운 지배계급 형성 - 사회이동 폐쇄
	정치적 권위와 부, 위신, 사회 불일치	정치적 권위, 부, 위신 사회 신분이 증복
갈등 유형	갈등표면화 격렬하지 않음	사회갈등의 잠재화 갈등심함

3. Dahrendorf의 모델에 의한 남북한 사회체제의 비교척도

Dahrendorf의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를 비교하기 위한 집단갈등의 모델은 어디까지나 이념형이지, 실제로는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이들 척도의 연속성에서 볼때 중간형태가 많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사회체제를 그의 모델에 따라 비교한다면 약간의 수정을 하여야 할줄 아나, 여기서는 편의상 그의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겠다.

(1) 남북한의 지배준집단

어느 사회의 지배적 준집단의 성격과 그 충원방식은 그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남북한 사회의 준집단을 비교하는데는 두가지 수준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그로부터 정치계급이 충원되는 보다 대규모적인 지배적 준집단의 비교,

둘째, 정치계급 자체의 구성과 그 안에서 생기는 잠재적 이익의 대립에 의한 갈등집단의 비교이다.

1) 지배적 준집단과 정치계급

남한의 정치계급을 충원하는 준집단은 매우 이질적이다. 남한은 첫째로,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사회의 어떠한 집단이 주요한 정치계급을 충원하는 준집단인지 뚜렷하지가 않다. 그것은 지배집단 자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다양한 집단으로 부터 충원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치계

급을 충원하는 지배집단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 한 배호, 김규택 교수의 “한국의 정치지도자 (1952-1962)”라는 논문에 나오는 자료를 다음에 인용해 보겠다. 그들은 한국의 정치계급을 행정관료 입법부간부(사법부는 제외되어 있음)로 간주하고 그들을 다음의 여섯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① 행정부의 장관 ② 삼선이상의 국회의원직을 지낸 의원들과 분과위원장, ③ 행정부의 차관 ④ 외무·내무·재무·법무부의 고급관리 및 시·도지사 ⑤ 주미 주일대사 ⑥ 군대 사령관 이상은 Dahrendorf가 말한 정치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이다. 이들을 충원하는 준집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경력을 살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과 사회기반(Social origin)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5)

주 45) Bae-Ho Hahn and kyu-Taik kim, Korean Political Leaders (1952-1962) Their Social origins and Skills Asian Survey, (1969) P 305-309

Table III -- Social Backgrounds of Korean Political Leaders and Korean
Population (1930)

Occupation of Father	Total torea	All Leaders	Liberal Gov't	Democratic Gov't	Military Gov't
Landlord	3	36	37	41	26
Government officials, Professionals, or Business Executives	5	25	25	21	28
Owner, Small, Business, Shops, and Clerk	8	10	12	4	14
Small Form Owner, or Tenant Farmer	78	24	22	31	24
Laborer	6	1	1	0	2
Other Occupation	0	2	1	2	4
Unknown	0	2	2	1	2
Total	100%	100%	100%	100%	100%
Number		316	148	86	47

Table II -- Occupational Backgrounds of the 1948 and the 1950
Legislative Assembly Members (in Percentage)

Occupation	1948 Assembly	1950 Assembly
Education	11.5	9.3
Professionals	7.7	7.8
Civil Servants	0	2.2
Banking	0	5.9
Local Government Officials	18.7	21.6
Journalist	8.1	4.6
Political Entrepreneurs	25.9	22.5
Private Enterprise	7.7	15.6
Clerical Workers	4.6	1.8
Farmer	11.0	5.5
Police	2.9	1.8
Others	1.9	1.4
Total	100 %	100 %
Number	209	218

윗표에서 보면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지방관료, 개인 기업체, 다음이 전문직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정치계급을 총원하는 준집단은 이질적이며 안정되고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 수개의 정당이 있지만 이들은 서로 이질적이다. 한국과 북한의 지배계급을 비교할때 북한에도 이상과 같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정치계급을 구성하지만, 그러나, 남북한의 정치계급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 지배계급의 공급원인 준집단의 성격에 있다. 한국은 이질적 집단과 정당에서 총원되지만, 북한의 정치계급은 이질적 집단에서 경력을 쌓아 올리는 동시에 당 경력을 가져야만 비로소 지배계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이야말로 모든 정치계급을 총원하는 동질적이며 조직화된 준집단이다. Dahrendorf도 전체주의 사회의 준집단내의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은 당원과 비당원으로 구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계급을 고찰하면, 우선 문제되는 것은 계급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은 모두가 중앙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 중앙위원은 당 행정부 군대 산업의 모든 피지배집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우선 중앙위원들로 설정하면, 그들은 완전히 동질적이면서 모든 피지배집단을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이 모든 피지배집단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지배계급에 대해서 서열을 매길 수 있도록 권력의

우열순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의 지배계급의 권위지위는 동질적인 당에서 차지하는 순위에 의해서 명확히 결정되어 있다. 북한의 지배계급의 구성과 서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5차 당대회의 중앙위원회 위원은 117명)

지배계급 카테고리	순 위	
(1) 지도자	1	
(2) 정당 정부의 이중역할을 하는 고참당원	1 ~ 5	
(3) 고급당간부	} 정치위원회 정 부 각 료 당통제위원회 위원	
(4) 고급정부관료		5 ~ 30
(5) 고급군대간부		
(6) 전문적인 직업군인	30~53	
(7) 당 및 정부의 중앙간부	54~62	
(8) 지방당의 최고간부	63~75	
(9) 지방당 간부 대중조직 지식인 지도자	75~117	

이들 정치계급의 각 카테고리는 모두가 당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며 당은 모두 유사한 지위집단을 포괄하는 준집단이다. 46)

2) 정치계급내의 갈등하는 이익

H.D.Lasswell은 전체주의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엘리트의 형성을 분석하는데 다섯가지 요인을 들고 있지만, 나는 그중 이익분석 (Interest analysis)에 의한 엘리트의 구

주 46) Communism in Korea, P 749-750

조 파악이 북한사회의 정치계급내의 갈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의 요인만 참고로 이용하겠다.

Lasswell은 그의 엘리트 분석의 기본이론이 되어 있는 가치-제도의 카테고리틀 적용하여, 전체주의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간의 잠재적이익 갈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익만 다음에 들어 보겠다.

i. 권력-혁명초기에 이미 투쟁이 전개된다. 외국과 접촉이 있었던 국외파와 국내파의 대립, 결과적으로 승리를 한 파벌이나 지도자에 가담한 자들의 이익과 그의 가담이 일정하지 않는 (inconstant affiliation) 사람들의 이익이 갈등한다. 이들은 이론가와 애지 테이터의 이익대립과 게릴라전에 종사한 자들의 이익과, 전규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의 이익대립으로 발전한다.

ii. 존경-혁명의 계속적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새로운 명문가문이 대두한다.

iii. 기술-처음에는 이데오로기의 순수성이 특별한 능력보다 중요시되지만 변환기에는 최고급의 기술자들은 전체의 사기저하를 회피하기 위하여 확보한다.

iv. 엄직(廉直) -전체주의 통치체제는 종교 지도자를 그의 지도권에 대한 위협한 경쟁자라고 본다. 따라서, 국내의 조직이 외국과 접촉하고 지원받지 못하도록 격리한다.

v. 애정-전체주의사회의 모든 지도자는 군중으로부터 받은 애정을 이용 할뿐만 아니라, 그와 친밀한 동지와 추종자의 충성과

애정을 확보한다. 47)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이 상이한 경력을 거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경력유형을 보면 대체로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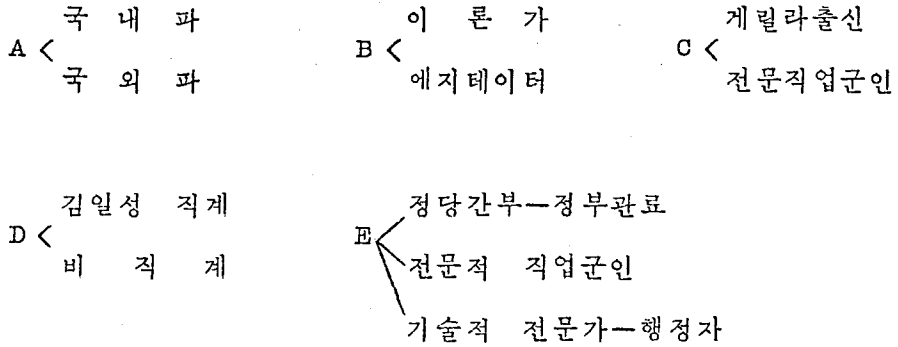
첫째로, 일제시대 만주에 있었던 반일 계릴라 출신, 둘째로, 지방정당 간부. 셋째로, 행정부 관료출신, 넷째로, 전문적 직업군인, 다섯째로, 전문가 및 기술자들이다.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걸쳐서 25명의 정치위원중에서 18명은 당료와 정부의 관료에서 충원되었으며, 5명은 전문직업군인이며, 단 2명이 전문가 또는 기술자 출신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이와 같은 엘리트의 충원 유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또는 소련의 페턴과 같이 레닌 스타린(이데오로기 정당 조직인) - 후루시초프(정당 조직-행정가) - 부레즈네프 코쉬긴(기술적 전문행정가) 유형으로 바꾸어 질 것인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48)

장차, 정당 정부관료-직업적 군인-기술·전문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 엘리트들 고찰하는 척도를 암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H.D Lasswell의 엘리트의 이익분석과 북한의 정치지배계급에 이르는 다섯가지 루트를 종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 47) H.D Lasswell, Agenda, for the study of Political elites in Political decision makers, ed, by Dwaine Marvick, P 273-275

48) Communism in Korea P 739-745

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갈등집단을 생각할 수 있다.



(2) 남북한의 피지배집단

북한의 피지배계급은 권위의 현상을 바꾸려는 하나의 요구로 결합되어 있는 대규모의 준집단이다. 이 집단은 조직과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의 갈등은 잠재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피지배준집단과 북한의 준집단이 다른점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준집단 성원을 지배준집단인 당의 조직으로 묶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조직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산하 대중조직은 피지배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조직이다. 이들 대중조직을 보면,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민주여자동맹, 조선농업노동자연합, 조선노동조합총연합의 조직이 있는데, 북한의 피지배집단은 거의 전부가 이와 같은 기능적-정치적결사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인구 14,000,000 중에서 이들 결사의 성원수는 10,000,000명이다. 이들 하부조직은 사실상 당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당과 다를바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이 지배적 준집단의 조직이라면 이들 하부조직은 피지배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집단이다. 북한의 피지배집단의 하루의 생활시간을 삼등분한다면 8시간은 작업, 8시간은 정치교양, 나머지 8시간은 휴식과 수면시간이다.

북한의 피지배집단은, 조직할 자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조직으로부터의 자유도 없다. 이와 같이 이익추구를 위한 결사의 자유가 없고, 오히려 지배적 집단의 조직에 의해서 묶인 결과는 잠재적 갈등이 축적되고 음성적 반항의 형태로 그들의 불만이 표출된다. 이와 같은 간접적 불만의 표출에 대해서 Scalapino 교수와 이정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 농민의 압도적 다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며 그 통치체제에 대해서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식량, 작업조건, 소비생산품의 이용도, 기타 유사한 사회경제적 관심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을 발설하므로써 야기될 위협때문에 서로 불평을 말하지 않는다. 만일 불평이 표현되는 경우, 그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태업을 하거나, 공동재산상태에 대한 무관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농민들이 현재 취하는 유일의 의미있는 저항이다. 49)

이에 대해서 한국의 피지배집단은 그들의 잠재이익을 표명하고

주 49) Communism in Korea P 1175

조직할 자유를 갖고 있다. (다만, 정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이익과 조직의 자유는 부정된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차이는 피지배집단의 전생활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지배적 준집단과 그 산하 대중조직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불평은 서로 이야기 못할만큼 잠재적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표출되며 표명의 통로를 발견하니 갈등은 축적되지 않는다.

(3) 사회이동성과 갈등

Dahrendorf는 전술한바와 같이 이동성과 사회갈등의 강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동성이 많을수록 사회갈등은 완화되는 반면에, 이동성이 제한되면 갈등은 축적되고 격렬해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 가설에 따라 남북한 사회체제를 갈등과 이동성을 관련시켜 비교하려면 우선 양사회에 있어서 이동성의 문제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양사회체제를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사회라는 분류에 따라서 사회이동성을 유추해 보기로 하겠다. Alex Inkeles는 소련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연구에서 소련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사회체제내에서 허용되는 수단으로 높은 지위를 얻은 다음에 그들의 이익과 특권을 자식들에게 인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층계층이 경쟁할 기회와 사회이동을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제한요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로, 교육의 기회에 대한 접근의 제한이다. 둘째로, 상속세의 변동, 셋째로, 사회적으로 바라는 어떤 신분에 대한 접근은 부분적으로 출생성분에 달려 있다.

넷째로, 중요한 관리직은 고등기술교육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충원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로, 가족의 강화이다. 어느 사회체제에 있어서나 혈연이 유대를 강화하면 사회이동은 그만큼 제한된다. 50)

남북한의 사회이동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로,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와, 둘째로, 사회이동과 정치목적 또는 경제목적과의 관련성, 셋째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주의라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일정한 능력을 가진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의 가계의 배경과 그의 조직생활을 엄밀히 검토한다. 학업성적이 제아무리 좋아도 가문과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에서의 활동이 좋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다. 대학 지원자는 그의 원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민위원회 교육부에 제출한다. 군인민위원회 교육부는 그들에게 할당된 대학입학 정원수에 따라서 추천해야 할 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당과 영도자의 충성을 다하며 혁명 과업을 위하여 희생을 돌보지 않는 자들만에 대해서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가 좋지 않고, 공산주의 열성분자가 아닌 피지배집단

주 50) Alex. Inkeles,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In Class, Status, and Power, ed by Lipset & Bendix, P 521 - 525

성원은 교육에 의한 사회적 신분과 상승을 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의 방법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당성과 가족 배경이 나쁜 개개인은 현재의 계층신분을 집단운영으로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음에 북한사회의 정치목적과 사회이동과의 관계를 보면, 북한에서는 그의 정치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국민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이라는 현대적인 귀속주의적 신분구분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의 기준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치목적과 계획에 의한 것이며 또한 당과의 관계에서 규제된 것이라고 보겠다. 새로운 형태의 신분계층 구조는 인위적으로 사회이동의 길을 막고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51)

끝으로 가족주의와 사회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공산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주의의 형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산업화에 따르는 사회분화의 결과 개개인의 상이한 지위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격차가 새로운 가족주의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는 자들은 자기의 특권과 이익을 자식에게 넘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신분의 자제는 하층계층의 자제보다도 유리한 출발점을 가지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주 51) 高永復 Ibid, P57

정치적 고려가 가족주의를 형성케 하고 있다. “혁명과업”에 종사하는 투사의 가족, 당과 행정관료의 가족은 사회적 위신과 특권에 있어서 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가장 천대되는 계층은 월남가족과 반공단체 가입자, 귀환포로, 전직(일제시) 관공리 등이다. 52)

북한에서는 이와 같이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을 정치적 성분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구분은 일대에 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가족주의에 의거한 귀속적 사회신분을 형성하고 의도적으로 사회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은 유동이 많을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한 귀속적신분제한이 없으므로 자제의 교육에 의해서 자기 소속 계층으로부터 상승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서울, 대구, 전주의 세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계층과 이동성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직업에 의한 사회계층 구조는, ①전문직 ②관리직 ③사무직 ④판매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구분되고, 이들 직업간의 세대간의 이동상은 상승 - 28% 하강 - 29% 무변동이 - 43%이다. 선진산업국가들과 비교할때 사회이동의 유형 원인은 다름망정, 계층이동은 적은 편이 아니다. 세대간의 학력이동은 상승 - 74% 하강 - 11% 무변동 - 15%로서 계층이동 보다 훨씬 유동적이다. 53)

주 52) 高永復 Ibid P 58

53) 이상백, 기채윤, 한국사회계층연구 P 87-93

이것은 자체의 교육의 기회는 소득차 외에는 개방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수입만 있으면 교육에 의해서 계층상승을 바라는 의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능력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정치목적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을 분류하고 있지도 않으며,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출생하면서 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는 점만 보더라도 사회이동은 북한사회 보다는 더욱 유동적이며 개방적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이동과 사회적 갈등을 비교할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계층의 유동성 때문에 사회갈등은 개별적으로 처리 해소되고, 집단적인 갈등은 그때 그때 표면에 노출되어 해소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일면에서 사회의 분화에 의해서 사실상 권위, 수입, 위신, 신분에 의한 차등 있는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이념적으로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며, 타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이동의 기회를 제한 통제하고 있어, 이미 소련에서 나타나 있는 현상과 같이 의도하지 않았던 강등과 새로운 계급의 형성이 예견될 것이다.

(4) 중북주의와 다원주의

우리는 앞에서 중북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첫째로, 권위지위와 부.위신 사회신분의 일치, 둘째로, 동질적인 엘리트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당, 정부 산업군대를 지배하고 있는것, 셋째로, 권위관계의 요소가 비교적 없는 집단의 갈등과 권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일치하는 경우를 들었다. Dahrendorf 에 의하면

갈등은 권위의 분화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됨으로 권위의 중복이 있는 곳에는 갈등도 중복된다고 추정하고 북한 사회의 갈등중복현상을 살펴 볼가 한다.

우선 소득에 대해서 보면 농민 1인당 평균 월소득은 33원, 노동자의 평균 노임은 월 40-45원,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기사의 월수는 55-250원, 장관급이 230-270원이라고 하니, 정치적 지배계급이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사회적 위신은 전체주의 제도하에서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평가되리라고 생각되며, 사실상 모든 권위의 근원은 준국가 또는 초국적 존재인 당에 있기 때문에, 당의 서열이 북한사회에 있어서 위신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것이다. 우리는 북한사회에서 동질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당, 정부 군대, 기업, 기타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의 서열 1위에서부터 9위까지의 위원들의 결직관계를 다음에 살펴 보겠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서열과 결직 (1970)

성명	순위	결직사항
김일성	1	군대 당 정부: 원수 수상 당서기장 정치위원회 위원
최용건	2	군대 정부 당: 최고인민회의의장, 정치위원 국방상 대장
김일	3	군대 당 정부: 대장 제1부수상 중앙위원회서기 정치위원

성 명	순위	겸 직 사 항
박 성 철	4	군대 당 정부 : 중장 중앙위원회 국제국장 부수상 외무상 정치위원
최 현	5	군대 당 정부 : 대장 군사위원회 부의장 국방상 정 치위원
김 영 주	6	당 : 조직지도부장, 서기, 정치위원회 위원
오 진 우	7	군대 당 : 대장 인민군참모총장, 중앙위원회 서기, 정치위원
김 동 규	8	당 정부 :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서기, 정치위원
서 철	9	당, 군대, 정부, 산하조직 : 중장 주중공대사 최고인 민회의부의장 정치위원

※ Scalapino & Chung-sik Lee Communism in
Korea 의 APPendix C, P 1350-1379 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최고지배자들은 모든 조직과
집단의 권력을 수인이 겸직하고 있다. 이것은 중복주의의 전형적
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명령적으로 조정된 권위의
갈등은 서로 결합하여 더욱 격렬화 할 것이다. 갈등이 격렬할 수
록 전인격적 개입을 하게 되며 지배자들이 한권위 지위에서 물러
난다는 것은 모든 권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심지어는 숙청이라는

방법으로 제거된다. 북한의 중북주의는 비단 최고정치계급에서 뿐만 아니라, 당원이상의 지배준집단의 성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익과 갈등이 다원적 형태를 취한다. 권위와 위신, 부 신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직업의 위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1963년 서울 문리대 사회학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직업평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1위가 대학교수 2위가 의사, 3위, 법률가, 4위, 정치가, 5위 기술자 6위, 군고급장교, 7위 고급공무원의 서열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치가는 그 위신이 4위에 불과하다. 54)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사회에 비하면 정치권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상실하지는 않는다. 정계에서 물러나서 회사의 사장직이나, 경영직에 있는 정치가들의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사회에는 숙청이라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사회는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갈등의 조절을 강조한다면, 북한사회는 제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갈등은 잠재화하고 오히려 음성적으로 격렬해진다.

주 54) Lee, Joung-Sik, The Social origin of members of the Six National Assembly Table 2에서 인용

四. . 결 어

남북한의 사회문화체제를 비교하기 위한 척도 모델에 관한 고찰을 하는데 우리는 Talcott Parsons의 사회체제 모델과, Dahrendorf의 갈등집단 모델을 고찰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남북한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Parsons의 통합이론은 사회란 그 자체가 어떠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그 모델은 자연히 정치, 경제, 가족, 사회계층, 문화체제, 규범등의 하위체제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능하며, 그들 상호간의 기능적 연관성에 주요한 관심을 갖는다. 그 모델은 안정과 질서를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Dahrendorf는 갈등은 도처에 있고 갈등이 오히려 자연적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갈등이라고 본다. 그는 갈등집단의 결정요인을 명령적으로 조정된 결사에 있어서 행사되는 권위로 보았으며 사회란 잘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는 사회제도의 갈등과 긴장의 근원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회체제의 구성부분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전체에 기여하는가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 모델은 사회를 분석하는데 각기 이점을 가지고 있다. Parsons의 모델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사회체제를 설명하는데 이점이 있고 Dahrendorf의 모델은 그 사회의 부정적인 결함을 분석하고 변화를 분석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가치정향을 비교하는데 Parsons의 모델을, 집단갈등을

비교하는데 Dahrendorf의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척도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모델에 의한 비교는 전체주의사회와 자유사회라는 구분법 아래 척도의 한 극단에 전체주의사회를, 다른 극단에는 서구적 자유사회를 놓고 북한은 전체주의사회의 카테고리 에, 우리나라는 자유사회의 카테고리에 놓고, 그들의 이념형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척도의 연속선상에서 북한 사회는 전체주의사회중에서도 그의 문화의 특수성을 지니고 변형된 전체주의형일 것이며, 우리사회도 자유사회이면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사회일 것이다. 남북한의 비교척도의 구성은 지극히 어려워,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을 비교하는 연구실적이 나오면, 그들 연구의 집적속에서 훌륭한 남북한의 사회문화체제 비교를 위한 척도모델이 스스로 발굴될 것이다.

발행일자	1973년 8월 일 발간
발간업체명	주식 회사 서라벌문예사
대표자	김재성
인가근거	내이 515.2-10803 (70.5.21)
참여자	전북대학교 부설 극동문제연구소
	조영빈

